

Reverse Kissinger? An Analysis of Sino-Russian Relations during Trump's second term: Directions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Sunjae Kim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and forecasts the future trajectory of China-Russia relations, widely considered a *de facto* quasi-alliance, amidst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following a potential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t employs Kenneth Waltz's Levels of Analysis framework to deeply examine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s (systemic, state, and individual levels) behind this relationship. The study's main argument posits that the 'Reverse Kissinger Strategy'—a Trump administration attempt to weaken the strategic alignment between China and Russia by improving ties with Russia—is highly likely to fail. This is because the structural factors and mutual interests binding the two nations, particularly their shared perception of the threat posed by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remain potent. Rather than weakening, China-Russia strategic cooperation is likely to deepen in several specific areas, including counterbalancing the U.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ultipolar order; enhanced communication linking the Ukraine and Taiwan issues; deepened military cooperation; and substantive improvement in economic and trade sectors, such as energy.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a trilateral alignment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also raised. The ongoing and deepening rapprochement between China and Russia, despite changes in U.S. domestic variables and foreign policy,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e strengthening of bloc confrontation,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China-Russia Relations, Reverse Kissinger Strategy, Structural Realism, Level of Analysis, US-China-Russia Triangle

리버스 키신저? 트럼프 2기 중러관계 분석: 협력의 방향과 전망

김선재

제주대학교

요약

본 논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평가받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특히 케네스 월츠의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 틀을 활용하여 중러관계의 근본적인 추동 요인(체제, 국가, 개인 차원)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연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러 간 전략적 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소위 '리버스 키신저 전략(Reverse Kissinger Strategy)'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국을 결속시키는 구조적 요인과 상호 이해관계, 특히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공통된 위협 인식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러 전략적 협력은 특정 영역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다극 질서 구축을 통한 對미국 견제,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연계한 소통 강화, △군사 부문의 협력 심화, △에너지 등 경제무역 내실화 등으로 전개될 수 있다. 나아가 북중러 3자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국내변수 및 대외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발전 중인 중러의 밀착 심화는 국제질서의 재편과 진영 대립 구도 강화,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주제어

중러관계, 리버스 키신저 전략, 구조적 현실주의, 분석 수준, 미중러 삼각관계

I. 서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는 또다시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대표되는 외교정책은 전통적인 동맹체제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그리고 강대국 관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다만 지난 1기와 달리 2기 행정부 외교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집권 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러우전쟁의 종결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과 국내적 피로감,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그는 푸틴과 직접 소통하고 특사를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고립시키려 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법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안보의 근간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우려와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대러시아 유화책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며, 나아가 유럽 전체의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Dan Sabbagh, 2024; Eric Ciaramella and Eric Green,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의는 무엇인가?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는 통상 ‘리버스 키신저 전략(Reverse Kissinger Strategy)’으로 평가된다(David Ignatius, 2025). 이 전략의 골자는 미러관계의 개선을 통해 중러관계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냉전 시기 미중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려고 했던 키신저 전략의 변형으로 해석된다(P. Andrieu, 2025; Michael McFaul and Evan S. Medeiros, 2025; David Brostoff, 2025).

실제로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등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미러가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對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Mearsheimer, 2022).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는 국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체제의 힘의 분포를 중시하는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요소를 상수로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미국의 전략과 뒤바뀐 태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피동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리버스 키신저 전략을 매우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Hasim Turker, 2025; Christian Caryl, 2025; Vita Golod, 2025; 정구연, 2025; 신경진, 2025). 그 주된 이유로는 ① 미러 간 오래 지속된 불신과 전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 ② 냉전 시기 중소 갈등과 달리 사상 최고의 밀월로 평가받는 현대 중러 관계, ③ 미국 주도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견제하고자 하는 중러의 공동 인식, ④ 에너지 협력의 상호 의존, ⑤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권위주의에 대한 상호 헌신 등이 지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회의론적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트럼프 2기라는 변수 하에서 중러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가 제시한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¹⁾을 활용하여, 중러관계의 핵심 추동 요인을 체제, 국가, 개인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중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라는 체제 변수(the international system)가 일방주의적이며 중러에 대해 공세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서로 간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둘째, 에너지,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의 양자 간

1) 케네스 월츠는 그의 저서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에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세 가지 수준을 크게 개인(the individual), 국가(the state), 그리고 국제체제(the international system)로 크게 분류함. 참고: Waltz, K. N. (1959).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내재적 협력 동력이라는 국가 변수(the state)는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기반 중 하나로 작용한다. 셋째, 시진핑(习近平)과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이라는 최고 지도자 간의 강력한 정치적 신뢰는 개인 변수(the individual)로서, 양국 간 전략적 결정을 촉진하고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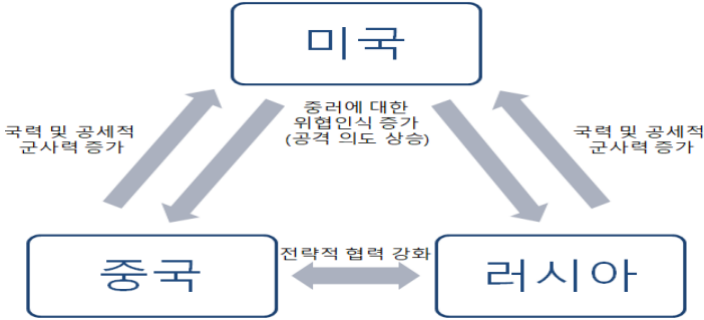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트럼프 2기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중러 협력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다극적 질서 구축을 통한 대미 견제 강화,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소통 및 상호 지지 강화, △군사 부문에서의 협력 심화, △에너지, 무역, 금융 등 경제 협력의 내실화, △북중러 3자 간 연대 강화 가능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예측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트럼프 2기 하에서의 중러관계의 미래를 조망하고, 이것이 국제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외교안보 환경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중러관계의 추동 요인

1.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체제 변수)

중러관계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외부 변수는 미국,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중러의 반감이다. 양국은 모두 현재의 국제 시스템이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자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를 제약하는 구조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공동의 위협 인식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 개념(Walt, 1987)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중러는 미국의 압도적인 국력(power) 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의도(intention), 특히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거나 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해 공동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김선재, 2022a).

<그림1. 위협균형론에 기반한 미중러 삼각관계>



출처: 김선재, 2022a

구체적으로 <그림1>을 보면, 먼저 미국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 중인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과 군사력을 패권국에 대한 도전국의 위협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정책을 구체화 중이다. 특히 중러를 권위주의 정권이자 수정주의로 규정하고, 쿼드와 오키스 등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견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중러는 이러한 미국의 행태를 공격적 의도의 상승 시각에서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다시금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김선재, 2022a).

중러의 이러한 위협 인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의 대변동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중러에 대한 미국의 특기할 만한 정책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4년 5월 중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역외 세력(미국을 지칭)의 개입 반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 행위" 및 "군사적 억제 행위" 반대, 한반도에서의 "대립 조장" 및 "긴장 고조" 행위 반대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동맹 중심 지역 전략에 대한 공동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 외교적 수단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재확인하며, "협박, 제재 및 압박 수단"을 버리고 대화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처럼 중러 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동맹 체제,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활동에 대

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이를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당위성으로 삼고 있다.

2025년 5월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글로벌 전략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关于全球战略稳定的联合声明)’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매우 잘 드러난다. 성명에서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를 공동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별한 책임을 지닌 핵무기 보유국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제로섬 게임을 버리고 전략적 위험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 골든돔 계획을 직접 겨냥하면서, 이것이 외기권을 무력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작전 영역으로 규정하고 사용하려는 안보 활동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종합해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리버스 키신저로 대표되는 미국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 역시 미국에 대한 중리의 위협인식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의 접근은 굉장히 거래 지향적이고 단발성인 반면,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이자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중리의 인식은 시진핑과 푸틴이 오랜 시간 공감대를 축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양자 간 내재적 협력 동력 (국가 변수)

중리관계는 단순히 외부의 위협에 대한 수동적 대응 뿐만 아니라, 양국 자체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내재적 협력 동력 역시 지니고 있다. 이는 경제, 에너지, 군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관계로 나타나며, 중리관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다. 2024년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관계가 임시방편이 아니며 “강력한 내재적 동력과 독립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을 반영한다.

먼저 경제 및 에너지 분야는 중리관계의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 중 하나이다. 중국은 15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파트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23년 양국 교역액은 팬데믹과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2,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China-Russia trade hits record...", 2024). 2024년

중러 교역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2,4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광물은 수입 총액의 77.8%를 점유했다. 장한후이(张汉晖) 주러시아 중국대사는 양자간 무역 규모가 탈냉전 직후인 90년대 초에 비해 약 48배 증가했다면서, 중국은 15년째 러시아 제1의 무역 파트너 지위를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中华人民共和国驻俄罗斯联邦大使馆, 2025).

러우전쟁 이후 서방의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극적으로 심화시켰다. 러시아는 서방 시장을 잃은 석유, 천연가스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새로운 판매처로 중국 시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 및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지나친 의존은 중국과의 대등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러시아에게 있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방의 제재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 문제는 양국 간 견고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러 양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과시하고 공동의 군사적 역량을 증진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목적 성격을 띤다. 양국은 '해상연합', '보스토크', '서부/연합' 등 다양한 명칭 하에 정기적으로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해왔다. 러우전쟁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러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연합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2024년 6월 양국은 헤이룽장 인근에서 대테러 훈련(변방협력-2024)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 이후 정례화된 해상연합훈련을 2024년 7월에 광둥성 인근에서 시행했으며, 2019년 이후 정례화된 연합공중전략순찰을 2024년 7월 베링해 인근에서 비행하기도 했다. 이는 양국 군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미국 중심의 지역 안보 질서에 도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3. 최고지도자 간 정치적 신뢰(개인 변수)

중러관계의 심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시진핑과 푸틴이라는 두 강력한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유대와 정치적 신뢰 관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시진핑은 2013년 집권 이후 2025년 현재까지 푸틴과 무려 40차례가 넘는 만남을 통해 우의를 다졌으며, 이러한 만남은 양자 간 상호방문과 G20, APEC, BRICS, SCO 등 다자협의를 불문하고 긴밀히 지속됐다. 빈번한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역시 강화 중이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前 국무부 부장관은 중러 관계가 시진핑과 푸틴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천 시간의 토론을 통해 만든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트럼프가 이러한 역학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David Ignatius, 2025). 이러한 빈번한 접촉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신뢰 구축과 전략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 '오랜 친구(old friend)' 등으로 칭하며 개인적인 친밀감을 과시해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직전에도 푸틴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났으며,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한계 없는 우호 관계(Friendship between the two States has no limits)'로 규정하고 "신형 국제관계의 모델"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개인적 신뢰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은 밀월 관계를 대내외에 꾸준히 과시했다. 시진핑은 2023년 3월 팬데믹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푸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Xi Jinping visits Russia...", 2023).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에도 시진핑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골든돔 정책 등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최고지도자 간의 긴밀한 관계는 중러 간 주요 전략적 결정과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톱다운(top-down)' 방식의 강한 추동력을 제공한다. 권위주의 정치체제 특성을 감안할 때, 최고 지도자 간의 신뢰는 양국 내부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료적 절차를 뛰어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며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중러 협력을 "고속철도 열차"에 비유하며 "풍경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더라도 열차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진하는 속도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王毅, 2025)은, 이러한 최고 지도자 간의 전략적 의지와 신뢰가 양국 관계의 항구성을 담보한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리급, 의회 수장(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러시아 상하원 의장),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간 고위급 교류까지 하면 그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진다. 즉, 양국은 상술한 고위급 교류를 근본적 토대로 삼아 사실상 준동맹(Quasi-Alliance)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국가 관계를 전적으로 지도자 개인 간의 관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국익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후계 구도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개인적 관계의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진행형인 시진핑-푸틴 시대에 있어서, 두 지도자 간의 강력한 정치적 신뢰와 개인적 유대는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변수임은 분명하다.

III. 트럼프 2기 중러협력의 방향

1. 다극 질서 구축을 통한 對미국 견제

중리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비판하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다극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러 양국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로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 민주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중러 관계가 “제3자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잠재적 '리버스 키신저 전략' 시도에 대한 견제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러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고립주의나 동맹 경시 태도를 이용하여,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신들이야말로 안정

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를 선호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리는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비서구 중심의 다자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브릭스는 이미 회원국 확장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SCO 역시 회원국 및 영향력 범위를 넓히면서 유라시아 지역의 안보 및 경제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강화 중이다. 또한 중리는 G20, CELAC(라틴-카리브해 국가공동체) 등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사우스의 발언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리는 중국이 제안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발전, 안전, 문명)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도 제시했는데, 동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질서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연계한 소통 강화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상호 지지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김선재, 2022b). 양국은 그간 핵심이익 사안에 대한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공세적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상호 간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024년 5월 중리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 측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한 러시아로서는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무쌍한 대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만일의 사태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등 유사시 러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2기 하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발을 빼거나 대만 문제에 대해 거래적 접근을 시도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미국의 영향력 약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으려 할 것이며,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모범 사례로 삼아 대만 문제에 대해 더욱 공세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러 양국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양쪽 전선에 동시에 깊이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서로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보조를 맞추며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핵 위협 사용 가능성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을 우려할 수 있으며, 러시아 역시 중국이 대만 문제로 과도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양국은 이러한 차이점을 관리하면서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소통과 상호 지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더욱 크다.

3. 군사 부문의 협력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무쌍한 외교정책은 중러 양국이 그간 정례화해온 연합군사훈련의 규모, 빈도, 그리고 작전 시나리오 등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선 장에서도 다루었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러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연합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주지하다시피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군사협력의 심화는 미국의 팽창하는 군사력에 대한 양국의 위협 인식에 기인한다. 이는 2024년 5월 중러 공동성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성명에서 양측은 미국의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안정 파괴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및 우주 배치, △NATO의 핵 공유 및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AUKUS를 통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한편 성명은 또한 미국의 생물무기 활동 의혹, 아태 지역에서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 구조" 형성 시도(특히 제3자를 겨냥한 군사 동맹), 미국의 '

인도-태평양 전략과 NATO의 아태 지역 개입 움직임, AUKUS 파트너십 등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러 양국이 미국의 동맹 중시 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국들을 포위하고 압박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나아가 양측은 아태 지역에서의 미사일 배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안정을 극단적으로 훼손하고 중러에 직접적인 안전 위협을 가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러를 겨냥한 "명백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비건설적이고 적대적인 이른바 '이중 억제(dual containment)'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조율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Joint State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2024). 연합군사훈련은 이러한 조율과 협력의 파생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술한 위협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중러 간 군사협력은 큰 틀에서 유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에너지 등 경제무역 내실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기술 수출 통제 강화 등 강력한 무역 압박 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으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처이자 확대되는 소비 시장으로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더욱 주목할 수 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트럼프 2기 출범은 중러 간 경제무역 관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내실화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는 중러 경제 협력의 핵심 동력으로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인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수출을 더욱 확대할 동인이 크며, 중국 또한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유인이 크다. 이와 관련해 루덴코 러시아 외교통상차관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석유 수출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두고, "중국이 얼마의 석유를 필요로 하든 러시아는 충분히 공급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俄罗斯：中国需要多少石油，我们就准备多少”，2025).

5. 북중러 간 연대의 가능성

미중러 삼각관계의 변화는 동북아 정세, 특히 한반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닌 북중러 간의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정찰위성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US concerned by Russia-North Korea ties, technology exchanges”, 2024). 2024년 6월 북러는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복원했으며, 그 직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전격 단행하기도 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중 양국은 다시금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이며, 2024년 9-11월 중국은 북한에 약 13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출하는 등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북중 관계 개선 흐름 속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 급증”, 2025.3.14).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조중 전통 우호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송고한 의지를 따르고 조중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북중관계 풀리나...북 외무차관 "올해 교류 협력 강화 희망"”, 2025.2.19).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러는 북한이 지닌 합리적 안보 우려(한미 연합훈련 등)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7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북중우호조약 체결 64주년 기념 연회에는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일각의 분석을 무색하게 했다.

현재까지 북중러 3국 간의 공식적인 군사 동맹이나 정례적인 3각 군사 훈련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북중러 간에도 제한적인 형태의 안보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김선재, 2025). 일례로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연합훈련을 계획 중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으며, 우리 국가정보원 역시 2023년 7월 러시아 측이 김정은에게 북중러 간 연합군사훈련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바 있다고 설명한 점이 대표적이다(“러시아 국방장관 "북한은 이웃, 연합훈련 개최 논의 중"”, 2023.9.5).

IV. 평가 및 함의

본 논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리버스 키신저 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속에서 중러관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케네스 윌츠의 분석 수준 틀에 기반하여 중러관계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을 △체제(미국 주도 질서), △국가(내재적 협력 동력), △개인(최고지도자 신뢰)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양국 관계는 단순한 편의주의적 결합을 넘어선 강력한 구조적 기반과 상호 이해관계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중러 협력의 추동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리버스 키신저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미국이라는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자 하는 'Against 키신저'의 형태로 중러 협력이 당분간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5월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인 7월에 열린 미러 간 전화 협상이 사실상 불발되었으며, 이에 트럼프가 공개 석상에서 푸틴에게 실망했다고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협력은 △다국 질서 구축을 통한 對미국 견제,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연계한 소통 강화, △군사 부문의 협력 심화, △에너지 등 경제무역 내실화 등으로 전개될 수 있다. 나아가 북중러 3자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중러관계에 내재된 한계와 잠재적 갈등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심화되는 양국의 경제적 비대칭성과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는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러시아의 자율

성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인들은 단기적으로 미국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필요성 앞에서 지엽적인 변수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중러 간 밀착이 강화되고 있으며, 양국의 협력이 북중러 간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엄중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우리로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러의 대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리스크(한반도 인근 중러 연합군사훈련 확대, 중러의 북핵 문제 묵인 등)에 대한 확고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강대국 간 경쟁에 연루되기보다는, 중러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면서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악화일로를 걷는 대신 한반도 문제 및 유라시아 협력 등 필요한 부분에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 관련 기술 고도화에 러시아가 응하지 않도록 고도의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소통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진. (2025년03월14일). 북중 관계 개선 흐름 속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 급증.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4_0003098404 (검색일: 2025.5.12).
- 김선재. (2022a). 탈냉전 이후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중·러 삼각관계: 한국에 주는 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6권제2호.
- 김선재. (2022b).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응: 한반도 외교안보에 주는 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6권제4호.
- 김선재. (2025).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최신외국정책정보* 통권 제1호.
- 김영아. (2025년02월19일). 북중관계 풀리나...북 외무차관 "올해 교류 협력 강화 희망". *SBS New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33248?sid=104> (검색일: 2025.6.14).
- 여한구. (2025년03월06일). 트럼프의 역키신저 전략과 한국 활로[시평].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489484> (검색일: 2025.03.08).
- 신경진. (2025년01월19일). “트럼프·푸틴 손잡고 중국 견제? 역키신저 전략은 불가능”.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569> (검색일: 2025.03.10.).
- 정구연. (2025년03월27일). [세계와우리] 트럼프 '역키신저 전략'에 동맹 분열.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27517795> (검색일: 2025.04.27.).
- 조아름. (2023년09월05일).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은 이웃, 연합훈련 개최 논의 중".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8786?sid=104>
(검색일: 2025.4.22.).
- Andrieu, Pierre. (2025, March 4). ‘Reverse Kissinger’ or Status Quo? What Trump 2.0 Means for the China-Russia Relationship. *The Geopolitics*.
https://thegeopolitics.com/reverse-kissinger-or-status-quo-what-trump-2-0-means-for-the-china-russia-relationship/#google_vignette (검색일: 2025.4.22.).

- Brostoff, David . (2025, March 21). The ‘Reverse Kissinger’ Strategy Is Based on Bad History.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5/03/the-reverse-kissinger-strategy-is-based-on-bad-history/> (검색일: 2025.4.22.).
- Caryl, Christian. (2025, February 20). A Grand Bargain With Russia Would Be a Disaster.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5/02/20/trump-china-russia-grand-bargain-nixon/> (검색일: 2025.03.21.)
- Chafetz, Glenn. (2025). The US dividing Russia from China? Forget about it. *The Strategist*.
<https://www.aspistrategist.org.au/the-us-dividing-russia-from-china-forget-about-it/> (검색일: 2025.03.21.)
- Ciamarella, Eric and Green, Eric. (2025, February). Ukraine, NATO, and War Terminati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report/ukraine-nato-and-war-termination> (검색일: 2025.5.22).
- Golod, Vita. (2025, February 21). What Trump’s Tilt Toward Russia Means for Chin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5/02/what-trumps-tilt-toward-russia-means-for-china/>
- Ignatius, D. (2025, April 3). Trump’s foreign policy: A ‘reverse Kissinger’ gamble on China and Russia.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5/04/03/trump-foreign-policy-reverse-kissinger-china-russia-gamble/> (검색일: 2025.03.21.)
- Ilie, Luiza. (2024, November 13). US concerned by Russia-North Korea ties, technology exchanges.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us-concerned-by-russia-north-korea-ties-technology-exchanges-2024-11-13/> (검색일: 2025.05.11.)
- Joint State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Deepening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f Coordination for the New Era in the Context of the 7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 Relations. *Kremlin.ru*. <https://eng.kremlin.ru/supplement/2041> (검색일: 2025.05.08.).
-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tering a New Era and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Kremlin.ru*. <http://en.kremlin.ru/supplement/5770> (검색일: 2025.04.21.).
- McFaul, M. (2025, October 25). China and Russia Will Not Be Split.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china-and-russia-will-not-be-split> (검색일: 2025.03.21.).
- Mearsheimer, John. (2022).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Ukraine war A lecture by John J. Mearsheimer. *The Robert Schuman Centre for Advanced Studies*. <https://www.youtube.com/watch?v=qciVozNtCDM> (검색일: 2025.3.15).
- Sabbagh, Dan. (2024, October 29). If Trump wins the election, Nato can expect more turbulence ahead.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4/oct/29/if-trump-wins-the-election-nato-can-expect-more-turbulence-ahead> (검색일: 2025.6.29).
- Turker, Hasim. (2025, February 23). Trump's Russia Strategy: Breaking the Sino-Russian Alliance or Strengthening It? *Geopolitical Monitor*.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trumps-russia-strategy-breaking-the-sino-russian-alliance-or-strengthening-it/> (검색일: 2025.03.21.).
- Umarov, Temur. (2025). Can Trump Channel Nixon to Turn Russia Against Chin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5/03/trump-russia-china-disruption?lang=en> (검색일: 2025.03.21.).
- Walt, S.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 N. (1959).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 光明日报. (2025, April 15). 俄罗斯：中国需要多少石油 我们就准备多少.

<https://guangming.com.my/%E4%BF%84%E7%BD%97%E6%96%AF-%E4%B8%AD%E5%9B%BD%E9%9C%80%E8%A6%81%E5%A4%9A%E5%B0%91%E7%9F%B3%E6%B2%B9-%E6%88%91%E4%BB%AC%E5%B0%B1%E5%87%86%E5%A4%87%E5%A4%9A%E5%B0%91-2> (검색일: 2025.5.11.)

人民网. (2024, May 20). 中俄能源合作前景广阔.

http://paper.people.com.cn/zgnyb/html/2024-05/20/content_26059800.htm (검색일: 2025.4.12.)

人民网. (2025, February 20). (国际观察) 中俄关系塑造世界政治格局.

<http://world.people.com.cn/n1/2025/0220/c1002-40422242.html> (검색일: 2025.3.2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5, March 7). 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jzbhd/202503/t20250307_11570443.shtml (검색일: 2025.5.1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5, April 1). 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wjzbz_673089/xghd_673097/202504/t20250401_11585717.shtml (검색일: 2025.4.1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5, April 1). 王毅同意大利副总理兼外长塔亚尼举行会谈.

https://www.mfa.gov.cn/web/wjzbz_673089/xghd_673097/202504/t20250401_11585713.shtml (검색일: 2025.5.1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5, April 1). 王毅会见美国国务卿布林肯.

https://www.mfa.gov.cn/web/wjzbz_673089/xghd_673097/202504/t20250401_11585719.shtml (검색일: 2025.6.1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5, May 9).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全球战略稳定的联合声明.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5/content_7023054.htm (검색일: 2025.5.20.)

中华人民共和国驻俄罗斯联邦大使馆. (2025, March 14). 张汉晖大使接受“俄罗斯商业咨询日报”专访.

http://ru.china-embassy.gov.cn/gdxw/202503/t20250314_11575735.htm (검색일: 2025.5.12.).

中华人民共和国驻坦桑尼亚联合共和国大使馆. (2025, February 18). 陈明健大使在“中坦关系研讨会暨《新时代中国的非中政策》智库报告发布会”上的主旨演讲. http://tz.china-embassy.gov.cn/fyrth/202502/t20250218_11557698.htm (검색일: 2025.6.5.).

Manuscript: May 31, 2025; Review completed: June 29, 2025; Accepted: June 30, 2025